

### IV. 主要 經濟 懸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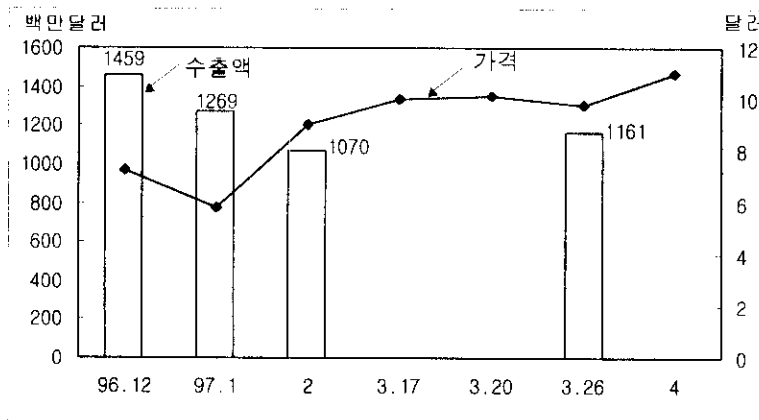
#### 1. 半 導 體 價 格 上 昇 勢

- (現況) 올해 1월에 6달러 선까지 下落했던 16M DRAM의 價格이 2月 부터 上昇해 현재 11~12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음
- (原因) 價格 上昇의 가장 큰 要因은 韓·日 業體의 減産이며, 高機能 PC 의 出荷에 따른 需要 增加도 한몫을 함
- (展望) 현재의 價格 上昇은 減産 要因이 가장 크므로 需給 調節 可能 여 부에 따라서 2/4분기 이후에는 DRAM 價格 上昇이 反轉할 수 있음

2月부터 나타난  
DRAM 價格 上  
昇으로 輸出도  
增加 效果

- (現況) 2月 부터 價格이 上昇해 현재 11~12 달 러에서 거래되고 있음
  - 작년 初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16M DRAM 가격이 올해 初까지 이어짐
  - 1月에는 現물시장 價格이 6달러까지 떨어져 國內 반도체 業體의 채산성에 큰 영향을 주었음
  - 또한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96년 12월에 14억 5,900만 달러에서 올해 1월에는 12억 6,900만 달러, 2월에는 10억 7,000만 달러로 계속 하락하였음
  - 그러나 2월부터 價格이 상승하기 시작해 현재는 16M DRAM의 現물시장 價格이 11~12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음

< 16M DRAM 價格 및 月別 輸出額 推移 >



- 따라서 반도체 수출액도 2월까지의 하락에서 반전 해 3월에는 11억 6,100만 달러로 증가함

韓國 · 日本 業體  
의 減産 決定이  
供給에 影響을  
미침

○ (原因) 가장 큰 要因은 韓 · 日 半導體 業體의 減産이며, 需要 增加도 한몫을 함

- 먼저 국내 반도체 3社(삼성, LG, 현대)가 공급량 조절을 위해 감산 결정을 내림
  -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5%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감산 결정이 공급에 영향을 미침
  - 감산 내용은 삼성이 月 1,800만개에서 1,500만개, 현대는 1,400만개에서 1200만개, LG는 1,000만개에서 800만개로 축소한 것으로 추정됨
- 국내 업체에 이어 일본의 NEC, 도시바, 미쓰비시 등 주요 업체도 감산 정책을 발표함
  - 도시바는 당초 3월말까지 16M DRAM을 월 800만개에서 1,000만개로 생산 확대를 계획했으나, 700만개로 감산 결정
- 이러한 업계의 감산 정책의 배경으로는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들 수 있음
  - 국내업체의 손익분기점은 약 8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, 대단위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수익성 하락은 투자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함
  - 미국 마이크론社의 국내 업체 덤핑 제소,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한 유럽의 가격하한선 설정 등은 국내 업체로 하여금 가격 상승의 필요성을 인식시킴
  - 또한 반도체 주력 제품을 16M에서 64M DRAM으로 유도하고 있어 16M의 증산을 억제함
- 신기술 채용 PC의 출하, 정보기기의 디지털화 등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
  - 인텔의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 MMX는 기존의 펜티엄급 PC에 비해 2배 이상의 메모리 용량을 필요로 함
  - 또한 멀티미디어, 3차원 영상 등 고기능을 제공하

收益性 惡化의  
沮止를 위해 減  
産 決定

高機能 PC의 출  
하 등으로 인해  
新需要 擴大

는 PC 신제품이 출하되어 수요 증가를 유도함

DRAM 需要는 持續 成長이 예상되지만, 供給 狀況에 따라 反轉 可能性이 있음

- (展望) 결국 供給 調節 可能 여부에 따라서 언제 든지 價格은 다시 下落할 수 있음
  -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올해에도 세계 DRAM 반도체 수요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임
    - 가격 하락에 따라 시장규모 자체는 축소했지만, 16M DRAM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
    - 작년에도 총판매액은 감소한 반면, 판매 개수는 3억 2,000만 개에서 13억 1,540만 개로 증가했음
    - 올해에도 세계 PC 수요의 증가, 네트워크화와 동영상 처리 등으로 메인 메모리 용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16M DRAM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
  - 그러나 올해 DRAM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측면의 증산 유혹임
    -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반도체 산업은 경쟁사의 생산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을 기회로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 상승과 원가 하락의 혜택을 얻게 됨
    - 작년에도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자 감산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오히려 생산량은 늘어났으며, 가격이 급속 하락하였음
  - 감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 대만 업체는 오히려 증산을 하고 있음
    -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 제품인 미국의 마이크론社는 감산에 동조하지 않고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    - 6월부터 16M DRAM의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대만 업체의 생산 능력은 연간 약 2억 개로 추산되며, 가격이 13달러에 이르면 손익분기점을 넘게 돼 생산 확대의 가능성이 있음
  - 결국 감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2/4분기까지는 현재의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, 그 이후에는 공급 과잉의 가능성도 있음 (신 광 철)